

1. 서론

근래에 들어 **가짜 뉴스**와 같은 허구들이 진실처럼 퍼지며 **‘탈진실’**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탈진실(Post-truth)’** 즉 온 세상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도 단순하게 그리고 빠르게 생겨나고 퍼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익명** 제도에 기대어 **가짜 뉴스**가 가져올 위험을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그 거짓들을 퍼트린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거짓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를 퍼트리는 매체 또한 발달해 한 가지의 거짓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알고리즘과 인지도 등 몇몇 조건만 충족된다면 글이 올라오고, 그것을 읽고, 공유하는 과정이 단 1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몇몇 유명인들의 인지도가 매체를 타고 더욱더 유명해졌을뿐더러 그들을 마치 전문가 또는 위인처럼 생각해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치 종교와도 같은 경향이 생겨났다. 이처럼 몇 가지 상황들이 겹쳐 거짓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탈진실이라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또한 대응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익명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위와 같은 두 가지 법안을 만들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픈넷과 미디어오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라 이는 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위반하는 법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익명제가 낳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닌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안은 그 내용과 의도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익명제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명제의 도입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내용과 의도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익명제로 인해 일어난 일들의 피해자들과 정보의 호수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쓰인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것이다. 익명성의 단점, 실명제의 장점을 통해 현대사회에 새로운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말해보고자 한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인터넷 실명제’ 탄생부터 종말까지) 금준경 기자 2021.02.01. 15:4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본론

2.1 우선 실명제의 장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질서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넷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고 활동하게 된다. 이때 서로 노출한 자신의 실명은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정보이다. 서로 자신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악플이나 성희롱성 댓글이 줄어들어 질서 바른 인터넷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인터넷 문화가 탈진실 시대에 미칠 영향은 악플이나 성희롱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학폭 미투에도 있다. 근래에 나오는 학폭 미투는 그 글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없고, 더 나아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즉 익명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때문에 진짜 미투도 있겠지만 그저 잘나가는 연예인을 시기 질투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짜 뉴스의 형태를 띠는 악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이런 악질적인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의 양은 정보 전달 기술의 발달 속도만큼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거짓 정보에 비해 적으며 이를 거짓인지 아닌지 판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분을 숨기고 글을 게시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책임 의식 없이 올리게 된다. 이는 잘못된 정보가 일으킬 사회적 파장이나 그 글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다수의 사람들도 확인도 없이 실어 나를 수도 있다.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글을 게시하려면 사실 여부가 확인된 듯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A씨를 만든다거나, 실제로 있는 전문가의 말을 교묘하게 입맛에 맞게 바꾸어 인용하여 거짓 근거들을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글을 읽고 감명받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글을 지인이나 넷상에서 공유해 잘못된 허위 사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많이 달라진다. 글을 올리는 사람과 그 글을 읽고 공유하는 사람이 모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글의 신빙성이 대폭 오르고, 글을 거짓으로 쓰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즉 실명제가 시행되면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들이 줄어들어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사이버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 넷상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에만 있지 않다. 피싱 범죄 같은 사기 범죄 또한 성행하고 있다. 사실 이런 모든 범죄는 대부분이 범죄자를 특정해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익명의 문제점과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이를 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구조적인 한계로 잡아 처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는 잡는다고 해도 범죄 사실과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만약 이때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익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범죄를 추적하여 피해 보상과 범죄자를 잡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아직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명제를 통해 많은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쉽게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는 사실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잡혀도 처벌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실명제를 시행해 범죄를 많이 잡는다면 이런 인식이 없어져 애초부터 범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도가 높아지고 사이버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할까요? (천재학습백과 초등 토론배틀)

2.2 이제부터는 익명성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익명성의 단점 또한 크게 두 가지로 알아 보겠다. 첫번째는 흔히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사실을 진실이고, 특보인 것처럼 유포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름 그대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전문 기자가 쓴 기사처럼 글을 써 올리는 방법이 있다. 우선 영상매체의 경우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꼬집어 과장되고 조작된 영상을 촬영해 올리거나, 사이버 렉카 같은 여러 기사를 짜깁기 해 한 영상으로 올리는 형식인데 내용의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은 영상을 올리는 형식이다. 가짜 뉴스의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가짜 뉴스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방아쇠 역할을 한 영상이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잡아 격리시키는 영상이었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만한 요소로 폭력적으로 사람을 끌고가는 설정을 넣어 조작 영상을 촬영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심지어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선동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익명성을 활용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가리지 않고 많은 사례가 있어 설명하기 보다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반인들은 알기 힘든 '다크웹'이라는 것을 이용해 범죄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범죄에 활용된 자금(화폐)로는 거래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받는 다크코인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동조하거나 돈을 주고 자료를 받는 사람들 또한 익명성을 통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갔다. 또한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메신저 또한 익명성과 보안 기능이 강력한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몸집을 키운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의 베이스가 모두 익명성이었으며 이 사건은 바로 N번방의 발달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익명성과 보안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출처 : 전주대 신문 제899호 5면, 발행일 : 2020.5.13.(수) 글: 한강훈 기자, 배솔민 기자